WRI 부러진 총 THE BROKEN RIFLE
Newsletter of War Resisters' International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소식지)
No 59 November 2003
(59호 2003년 11월)

2003년 12월 1일 : 평화수감자의 날

평화수감자 명단의 역사, 그리고 12월 1일의 유래

바트 호어만(Bart Horema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의 일원으로서, 나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이 최초로 설립된 장소에 갈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암스테르담의 국제사회역사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History, IISH)에 축적되어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오랜 유산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이점을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의장인 조안 시안(Joanne Sheehan)이 국제사회역사연구소 방문을 계획하고 나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고문서들을 속에서 우리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수감자들의 파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은 1956년 12월 1일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날 평화수감자들의 명예로운 명부가 발표되었고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모든 지부 회원들에게 요청해 수감자들에게 엽서나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그 당시와 오늘날의 수감자 목록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 명단은 구금되어 있던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던 병역거부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목록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지금은 전쟁 그리고 전쟁 준비에 반대하여 비폭력 행동을 하다 수감된 사람이면 누구라도 명단에 포함된다.

물론, 이 명예로운 명단이 1956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이 구금된 평화 활동가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1926년 이후의 파일에서 구금된 병역거부자와 노역장에 수용된 병역거부자들이 기록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평화수감자 명단을 찾아냈다. 다만 몇몇 해의 명단,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1940~1946) 동안의 명단은 빠져 있었지만 1947년 이후부터는 매 해의 명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56년 전까지는 12월 1일이 평화수감자들의 날로 지정되지 않았다.



2002년 9월 12일, 병무청 앞에서 진행된 병역거부 선언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어떻게 평화수감자의 날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까지 지속될 수 있었는지는 1958년 두 명의 수감자가 천 통 이상의 안부편지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짐작컨데 오스만 무랏 울케(Osman Murat Ulke : 역자 주 - 터키의 병역거부자로서 1997년 수감된 후 국내외의 압력에 의해 몇 달 만에 풀려났으나 1998년 다시 체포됨)가 1997년과 1998년 12월 1일에 이 기록을 경신했음이 틀림없다. 그래도 그 당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활동범위는 작지 않았다. 1961년 처음으로 평화수감자의 명예로운 명단(PFP Honour Roll)이 출판되었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63년 처음으로 유고

편집자의 말

2003년 평화수감자의 날은 한국에서 커나가고 있는 병역거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운동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병역거부자들을 수감시켜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고 이들은 최근까지 대부분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사람이 형을 살고 다시 몇 번씩 재수감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었고 형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5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부러진 총' 이번 호에선 이들의 기구한 운명과 한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병역거부자들의 정치적 운동을 특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히 군사화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대한 우리들의 지지가 명백히 필요할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스펙(Andreas Speck)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영국사무소
병역거부 운동 담당

War Resisters' International5 Caledonian Rd; London N1 9DX; Britain
http://wri-irg.org
concodoc@wri-irg.org

슬라비아의 병역거부자 6명이 명단에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6년에서 9년 사이의 구금형을 복역 중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북대서양 지역 밖의 수감자로서는 첫 번째로 기재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이들이 존재했다. 1년 뒤인 1964년에는 제 3세계 국가의 평화수감자로서는 처음으로 14년 이상의 형기를 복역 중인 7명의 파키스탄 수감자들이 기재되었다.

가장 지독했던 냉전 기간 동안에는 처음으로 동독, 알제리, 그리스, 스페인,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소련의 평화수감자들이 기재되었다. 1983년에는 최초로 헝가리의 병역거부 수감자들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캠페인을 위한 정보들이 함께 제공되었다.

그렇지만 평화수감자 명단은 주로 서구 활동가들과 동유럽의 병역거부자들로 구성되었고 제 3세계 국가의 수감자들은 부족한 상태였다. 1971년에는 또 한번 파키스탄의 평화수감자와 함께 1명의 모잠비크 수감자,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1명의 남베트남 수감자가 있었다. 1973년에는 이스라엘 수감자를 찾아볼 수 있으며, 1977년에는 로디지아(Rhodesia, 역자 주 - 현 잠비아) 수감자가 있었다.

우리는 또한 병역거부자들이 고려되는 면에 있어서 흥미로운 변화를 볼 수 있다. 1967년까지는 구금된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를 수행하며 대체복무현장에 있는 병역거부자가 분리되어 있었다. 어떤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외견상 더 이상 처벌로서의 대체복무라고 보기 어려웠다. 아무튼 이 두 경우를 분리할 필요를 느꼈고 언제부터인가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병역거부자들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1974년에는 평화수감자의 명예로운 명단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명단의 제작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징병제와 병역거부자료실(CONCODOC)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병역거부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징병제와 병역거부자료실 CONCODOC(CONscript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DOCumentati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실은 전 세계의 징병제도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을 다룹니다. 이러한 자료실은 전 세계에서 ‘징병제와 병역거부자료실’이 유일합니다. ‘징병제와 병역거부자료실’에 등록하면 180여종에 달하는 국가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 합니다 (http://wri-irg.org/co/form.htm). 또한 일부 자료는 스페인어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병역거부자료실’ 프로젝트는 전 세계 병역거부운동 그룹들로부터 전해지는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부러진 총(Broken Rifle)

‘부러진 총’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뉴스레터로서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로 발행됩니다. 이번 2003년 11월, 통권 59호는 안드레아스 스펙과 정용욱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최정민 씨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제작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호를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oad,
London N1 9DX, Britain
tel +44-20-7278 4040
fax +44-20-7278 0444
concodoc@wri-irg.org
http://wri-irg.org/news/2003/pfp03-en.htm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 작지만 힘찬 발걸음

최정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에서 ‘병역거부’라는 생소한 단어가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초의 일이다. 당시 병역거부권을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비공개 토론회를 준비한 것을 계기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이야기가 한 시사주간지에 소개되면서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미 국군 창설 이래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주로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이 생겨났고 그 인원이 전체 1만 여명이 넘는 동안에도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서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었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거쳤고 군사정권 아래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펼쳐졌다. 국가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기치 아래 정권은 경제성장의 초점을 민중의 삶이 아닌 국가경제에 맞추게 되었고 한편으론 북한의 존재를 잘 활용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들의 복종심이나 단결심을 이끌어냈다. 물론 이러한 군사화된 한국사회의 핵심에는 징병제하의 군대가 있었다. 당연히 상명하복이나 전체주의적인 사고관이 온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다. 병역국가 대한민국에서 총을 들 수 없다는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편한 대상이었고 따라서 정권은 이들을 혹독한 탄압과 차별로 일관하게 된다.

병역거부 운동의 첫 발걸음

처음 ‘병역거부’를 비롯한 병역제도 전반을 논의할 토론회를 비공개 토론회로 구상한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징병제도나, 군대인권, 특히 병역거부의 문제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쯤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또 토론회 이후 병역거부 운동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 또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토론회를 진행하고 1주일쯤 후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군대 반대, 군기피 방법 등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3군데를 수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시민, 사회단체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당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였던 평화,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2001년 한 해 동안 각종 간담회, 세미나, 기고글 등을 통해 병역거부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난 50여년간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서 받았던 온갖 차별과 편견은 무엇인지를 알려나갔다. 병역거부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이 받은 고통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 신문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50% 이상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양심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고 인정할 수 없으나 그것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사회적 여론의 결과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또한 이 여론의 바닥을 흐르는 정서에는 병역거부자들을 불쌍하고 가엽게만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당시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싸고 벌

어졌던 가장 첨예한 논점은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단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었다. 한국인구의 20%가까운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인데다가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여 철저히 배척해왔었다. 실지로 이러한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은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준비하였던 몇몇 국회의원들이 결국 입법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작지만 아주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젊은 사회운동가들에게 병역거부권은 굉장히 새로운 주장이었고 실천이었다.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퍼져나갈 무렵 자신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전화와 메일들도 간간히 접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 평화주의자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병역거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적 논의도 특정 종교인의 이단논쟁에서 나아가 기존의 전통적 안보관을 갖고 있는 보수우익들이 합세하면서 남북관계와 대치상황, 국가안보 등의 논의로까지 확산되었다.

병역거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2002년은 병역거부 운동이 가장 많은 논란에 휩싸인 시기이기도 했고 그 만큼 이 운동이 많은 고민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2001년 1년 동안의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을 계기로 2002년 2월에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6개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발족을 하였고, 연대회의 발족 바로 며칠 전에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 이외에 대체복무 등의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는 위헌재청심판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났고 지금 현재까지 총 8명이 병역거부 선언을 하였다. 특히 2002년 9월, 나동혁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는 20여명 가량의 대학생들이 함께 앞으로 입영장이 나와도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병역거부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연대회의에서는 이렇듯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고민을 상담해 오는 사례가 늘자 연대회의 활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 병역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는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또 겨울방학에는 병역거부 학교를 개최해서 군대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회에서, 특히 군입대가 인생에 있어 가장 고민스러운 시기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처럼 병역거부 운동이 확산되자 지금까지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무시해왔던 정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서둘러 각급 학교로 병역거부 운동의 확산을 막으라는 특별 지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달했으며 국방부에서도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대통령이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병역거부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운동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국내의 상황이 아닌 남의 나라 문제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반전의 한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의 운동사상 거의 최초의 일이다. 또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일반 민중들이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들어갔고 이 명분 없는 전쟁의 증언자들이 되었다. 이 또한 최초의 일이다.

한국에서의 반전운동은 특히 한국군 파병 문제를 놓고 크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한 사람의 병역거부자가 또 탄생했다. 김도형 씨는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특히 한국군이 그것에 일조하게 되어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군 파병이 결정적으로 자신이 병역거부를 선언하게 되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명분 없는 전쟁에 일조하는 한국군에 입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번 이라크 전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찬성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전쟁과 야만의 시대에 김도형 씨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은 더욱 옹호되고 보장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병역거부 운동은 이 시기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파병 결정 후 한국 군인들을 향해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참전하기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국가의 생존을 벼랑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앞으로의 과제

올해 상반기에는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 모임이 병역거부자들과 이들을 지지, 지원하는 사람들의 조직인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의 결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 이스라엘에서 열렸던 국제병역거부자의 날 세미나와 비폭력 트레이닝 참가를 계기로 여름에는 병역거부자들과 군사주의에 대한 비폭력 저항자들이 모여 평화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에서는 비폭력주의와 병역거부 운동에 관한 의미, 군사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의사소통과 권력분석에 관한 비폭력 트레이닝이 열렸다. 다른 세상에 대한 실험과 주체들의 훈련이라는 모토로 개최되었던 평화캠프는 조금은 미숙했으나 첫 발걸음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또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작업을 했던 병역거부 관련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되어서 공개시사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순회 상영회 및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병역거부와 평화를 주제로 한 정기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1일 평화수감자의 날에는 시와 꽃과 촛불이 있는 작지만 따뜻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이제 겨우 3년의 역사를 가진 운동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운동이지만 어느 나라보다 민주화운동이 치열했고 역사도 길었던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구조적으로 군사주의가 강하게 작동했던 사회에서 어쩌면 한국의 운동마저도 거대한 적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적 외피를 둘러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병역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은 아직은 소수이다. 수십 년간 병역거부자들을 외면했던 만큼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다른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느리지만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역사

홍영일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한반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은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병역을 거부한 일본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전역에서 6월 21일에 일제히 체포되면서, 6월 22일에는 타이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6월 29일에 체포 선풍이 불고 지나갔다.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3명은 당시 일제 치하로서 한국인들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반대 사상을 유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문태순, 최성규, 한순기 등은 옥중에서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증인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체포된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 옥응련도 일본 동경의 도요타마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1914 년 여호와의 증인 선교인인 로버트 R. 홀리스터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강범식이 최초의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이 된 이후 1945년 이차세계대전 발발 시까지 여호와의 증인은 수십명 규모로 늘었다. 1932년 6월 11-13일 서울에서 열린 여호와의 증인 대회에는 총 45명이 참석하였다. 1939년 이후 이차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한국에서 활동하던 여호와의 증인 거의 대부분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투옥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차세계대전 후 한반도는 남한(이하 한국)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양측은 한국전쟁을 벌였다. 그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고 남과 북의 치열한 대결 의식과 국가주의, 강화된 병역법, 군사독재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대규모 병역거부 누적 숫자를 기록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가 매우 희소해지는 특이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은 일체의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파악할 수가 없다.

한국전쟁 초기 전쟁 준비가 덜 되어 있던 남한은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수도 서울은 북한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례는 북한 인민군의 강제 징집에 대한 거부의 형태였다. 당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던 여호와의 증인 노병일은 북한 인민군 입대를 거부하여 총살을 당할 위기에서 "나는 양대진영 그 어느 쪽에도 속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는 어떠한 인간의 법 때문에 하느님의 법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힌 뒤, 풀려나는 경험을 하였다. 박종일은 1951년 1월 중공군에 의해 다시 서울이 점령되었을 때 북한의 비밀경찰에 붙잡혀 "그리스도인들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서 피난을 갈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설명과 함께 여러 차례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입장을 설명한 끝에 북한 인민의용군에 징집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고, 1953년에는 남한 군대에 의해 징집되는 것을 거부하여 국방경비법에 의해 군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여 양 진영에 대해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병역법 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입영기피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444호, 57.8.15)에서 3년 이하(병역법 제1163호, 62.10.1)로, 군 입대 후의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항명죄의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군형법 제1003호, 62.1.20)에서 3년 이하(군형법 제4703호, 94.1.5)로 상향 조정되면서 점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 5월 16일에 들어선 군사 정권이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그 이전인 50년대와 60년대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곤

정춘국

(55세, 충남 금산군)



여호와의 증인 정춘국은 21세인 1969년에 병역을 거부하자 병역기피죄로 10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26세인 1976년 다시 징집이 되었고 이를 거부하자 1심에서 3년 구형에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3년형을 선고하였다.
만 3년간의 실형을 살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 병무청 직원이 다시 징집영장을 들고서 교도소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977년이던 당시 29세의 정춘국은 32사단 군부대로 강제로 끌려가면서 병무청 직원들로부터 '병역법상의 전과는 전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또 징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병역법에는 '고졸은 만 28세, 대졸은 만 3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징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의예과 1년 중퇴인 정춘국이 의대 4년을 졸업한 것으로 기록하여 징역을 살고 나온 정춘국을 재징집한 것이다. 그리고 32사단에서는 병역법 전과가 있다고 누범가산을 하였다. 징집을 할 때는 전과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기억하는가?
1977년 그리하여 항명죄에 대한 최고형 2년의 두 배인 4년을 선고하였으며, 이 재판을 받기까지 그는 구금되어 있는 군부대 내에서 무릎을 꿇리고 가슴을 군홧발로 걷어차서 뒤통수를 시멘트 바닥에 메치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붓는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
결국 정춘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병역기피죄'로 3년 10개월, 항명죄로 4년 등 도합 7년 10개월의 실형을 가석방 없이 살았고, 21세에 첫 실형을 살기 시작해서 33세에 이르러서야 이 모든 형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의사 지망생이었던 정춘국은 현재 자신의 당초 희망이었던 의사의 꿈을 접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반대하며… 병역거부자 은국이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하였다. 대개 한 번의 처벌로 군인 징집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원 조회가 철저히 운용된 까닭에 전과자의 신분으로 취업 제한 등의 커다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다. 윤경수(가명)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한 후 모 시멘트 회사(당시 건설붐이 불고 있던 한국에서 이 회사는 입사 지망생들에게 대단한 선망의 대상이었다)에 취업이 내정되어 있었으나 1968년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1년의 수감 생활을 한 후 군 미필자에 대한 채용 거부로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다.

1961 년 12월 27일 창설된 향토예비군 제도-제대 군인을 일정 기간 군사 훈련에 동원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제대 후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행하는 이들에게 반복적인 처벌-체형, 벌금형 포함-로 많은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법은 지금까지 존속하면서 병역거부자들에게 변함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홍기는 99년 제대 후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예비군으로서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약식 재판에 의해 3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현재 다섯 건의 고발건이 처리 중이며, 한 건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이다. 무거운 벌금형과 잦은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누적된 실형까지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1969 년 7월 22일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사 정권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여 갖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한다. 정춘국은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감하는 날 병무청 직원들이 교도소 앞에서 그대로 연행되어 군부대에 강제 입소당하였고 군부대에서 군사 훈련을 거부하여 도합 7년 10개월을 복역하였다. 우응섭의 경우 재판부는 2년이라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시켰다. 그 후 우응섭에게는 입대 영장이 다시 발부되었고 이를 거부하자 이전의 선고 형량을 합산하고 가중 처벌을 하여 당시 법정 최고형이 2년이었던 항명죄 조항으로 결국 5년을 복역시켰다. 이외에도 군사 훈련 거부로 육군교도소에 복역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 하여 다시 재판을 열어 형을 추가하는 등 행정, 사법 당국이 총체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특히 1975년 군사 정권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 박정희가 입영률 100%를 전국 병무청에 지시하자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을 군부대에 입소시키곤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강제 입영시키기 위해 그들의 집회 장소를 포위하고 있다가 군복무 연령대로 보이면 무조건 군부대로 끌고 가는 식이었다. 조영헌은 결혼식 직후 결혼식장에서 병무청 직원들에 의해 군부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강제 입영 관행은 한국 사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2001년도까지 지속되었고,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있는 군부대 영창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군인들이 수감되는 육군 교도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은 고초는 제도적 공격과는 별도로 매우 가혹한 경험이었다. 1976년 강제로 입영된 이춘길은 군 헌병대 영창에서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고 많은 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출소 후 구타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박춘홍은 72~73년에 걸쳐 10개월간, 75~77년에 2차로 1년 6개월 간 수감되어 있는 동안 9개월의 독방 생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폐쇄공포증, 공황 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다.

1970 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군사 훈련 수업이 시작되었고 여호와의 증인 청소년들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 당국이 구타, 체벌, 회유 등 갖가지 방법으로 자퇴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렇듯 가혹해지고 사회적 편견이 심해지기 시작하자 그나마 비전투병과의 복무나 안식일 복무 불가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부 종교의 병역 거부는 완전히 끊기고 병역 거부는 '사이비-이단'으로 왜곡되기 시작한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전유물이 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12월 한 불교신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까지 수십 년간 여호와의 증인만의 문제였다.

한국에서 군사 정권에 의한 통치는 1993년까지 지속되었는데, 80년대와 90년대에도 강제 입영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병역거부자 억압 역시 존재하였다. 상관이 총을 두 번 주도록 하고 각각 거부한 것을 경합하여 법정 최고형인 2년의 1.5배를 선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항소하자 대법원은 1992년 9월 14일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러 번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선고도1534판결【항명】)

대법원은 60년대 이후 일관되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 오지 않고 있다. 1985년 7월 23일에도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재판에서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선고도1094판결【향토예비군설치

법위반】) 위에 언급한 92년 9월 14일의 판결에서도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껏 내려진 이와 같은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를 판결문에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추세가 완화되고 한국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군복무 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어든 1994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인 군형법 제44조 항명죄의 최고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였다. (군형법 제4703호) 그 동안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왔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94년부터는 자동적으로 2년 형 대신 3년 형에 처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군사 정권 시절의 가혹한 학대와 투옥 형량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90년대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연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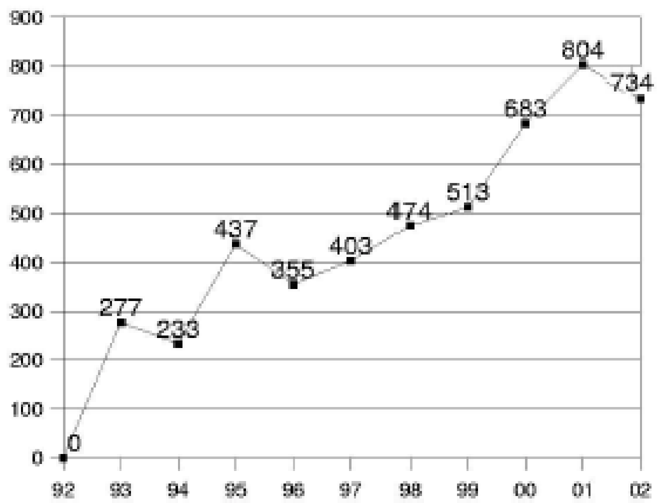
220(92), 277(93), 233(94), 437(95), 355(96), 403(97), 474(98), 513(99), 683(00), 804(01), 734(02) (아래 표 참조)

민주화가 점차 진전되면서 2001년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줄잡아 100회 이상의 언론 보도와 많은 단체에서의 토론회 관련 자료들의 발표 등으로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관용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2002년부터는 병무청에 의한 강제 입영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 재판을 받게 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동안 군사 재판에서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던 것에 비해 다소 관대해졌다. 또한 2002년 1월 29일에는 현직 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피고의 청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 이후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중 보석이나 불구속으로 약 150명이 풀려나 있다. 재판부에 따라 보석 적용 여부는 천차만별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로서 처벌을 받은 수는 일만 명을 넘고 있으며, 구체적인 통계가 수집된 지난 2001년 12월 20일 교도소에 수감된 전체 병역거부자 1,640명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해마다 발생하는 병역 거부 사례는 그 이후에도 꾸준하지만 수감 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줄어들고 또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면서 보석 등으로 풀려나 2003년 8월 30일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복역 중인 여호와의 증인의 숫자는 767명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이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어 병역법이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의 증인 이외의 종교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어 병역 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든 하나의 주요 이유였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인한 누적 및 현 수감자 숫자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660만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234개 나라와 지역 중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된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5개국이며 그 총수는 70명이다. 이 수를 한국에 수감된 767명과 비교해 보라. 그러나 점차 비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가 출현하고 또 사회적으로 관용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머지않아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



병역거부 운동과 만나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번지 기사연빌딩 5층
TEL : 02-393-9085
FAX : 02-363-9085
E-mail : corights@jinbo.net
http :// corights.net

☮ WRI Korea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49-6 2층 Gadis 인포샵
TEL : 02-991-5020
FAX : 02-389-5755
E-mail : wrikorea@hotmail.com
http://wrikorea.wo.to

☮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

(450-600) 경기도 평택 우체국 사서함 33호
TEL : 031-618-0033
FAX : 031-618-1914
E-mail : pad@wtbts.or.kr
http://www.jw-media.org

☮ 한국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군봉사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
TEL : 02-966-0072
E-mail : paullee64@hanmail.net
http://www.kuc.or.kr

2003년 평화수감자 명단

이 명단 보는 법

* 먼저 **평화수감자의 이름**이 굵은 글씨체로 나옵니다. 이어서 형량과 수감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수감 사유가 제시됩니다.
*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거나 또는 형기를 모두 채운 나라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됩니다.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있지만 병역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Vahan Bayatyan
2년 6개월 2002/10/28 - 2005/5/4
Artur Grigoryan
2년 6개월 2002/11/26 - 2005/5/5
Karen Abadzhyan
2년 6개월 2002/12/5 - 2005/6/12
Set Pogosyan
2년 2002/12/29 - 2004/12/29
Parkev Khachatryan
1년 2003/1/29 - 2004/1/29
Ashot Melikyan
2년 2003/1/30 - 2005/1/30
Anton Tigranyan
2년 2003/2/10 - 2005/2/10
Gor Mkhitaryan
1년 6개월 2003/2/26 - 2004/8/26
Abraham Kuzelyan
2년 2003/2/27 - 2005/2/27
Grigor Oganesyan
2년 2003/3/12 - 2005/3/12
Edgar Oganesyan
2년 2003/3/21 - 2005/3/21
Ambartsum Odabashyan
3년 2003/4/1 - 2006/4/1
Ayk Bukharatyan
2년 2003/4/2 - 2005/4/2
Vahan Mosoyan
2년 2003/4/15 - 2005/4/15
Arsen Akopyan
1년 6개월 2003/4/30 - 2004/10/30
Arkadii Avetyan
1년 2003/5/2 - 2004/5/2
Artur Stapanyan
2년 2003/5/12 - 2005/5/12
Ayk Gareginyan
1년 6개월 2003/6/11 - 2004/12/11
Ashot Akopyan
2년 6개월 2003/6/12 - 2005/12/12
Grikor Mkrtichyan
2년 2003/6/13 - 2005/6/13
이상 Kosh 교도소

Araik Bedzhanyan
1년 6개월 2003/7/2 - 2005/1/2
Vanadzor 교도소

Avetik Avakyan
1년 6개월 2003/3/25 - 2004/9/25
Ashot Tsaturyan
2년 2003/4/29 - 2005/4/29
Aram Khechoyan
1년 2003/7/6 - 2004/7/6
Edgar Saroyan
2003년 5월 15일 이후 재판 진행중
Suren Akobyan
2003년 7월 3일 이후 재판 진행중
Artur Torosyan
2003년 7월 3일 이후 재판 진행중
Artjom Kazaryan
2003년 7월 4일 이후 재판 진행중
이상 Nubarashen 교도소

벨로루시

Yuri I Bendazhevsky
2001/6/1 - 2009/6/1
Minsk 교도소
(Prison Minsk, ul Kavarijskaya 36, PO Box 36 K, Minsk)
부당하게도 체르노빌 연구자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자가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벨기에

2003년 2월 16일 11명의 평화활동가들이 미군장비를 운반하던 미국 기차를 중단시켰다. 이 장비들은 앤트웝 항구에서 걸프만으로 무기를 선적하러 가는 중이었다. 선고공판은 10월 27일 월요일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vredesactie.de

영국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반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많은 이들이 벌금형에 처해졌고, 다른 이들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몇몇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Ulla Roder는 2003년 영국공군 로이차르 기지에서 지상폭격기 토네이도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현재 수감되어 있지는 않다.
Toby Olditch와 Phil Prichard 영국공군 페어포드 기지에서 B52 폭격기를 무장해제하려다 체포되었다. 이 2명 역시 현재 수감되어 있지 않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inspiration2003@yahoo.co.uk
그 밖에도 몇몇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cotland.mother-earth.org/ulla/prisoners.shtml

핀란드

10월 1일 현재 총 19명의 병역거부자들이 핀란드에 수감되어 있다. 하지만 3명의 이름만 공개된 상태다.

Lasse Jansson
2003/8/25 - 2004/3/12
Suomenlinnan tyosiirtola,
Suomenlinna C 86, 00190 Helsinki
Pano Pietila
2003/9/8/ - ?
Helsingin tyosiirtola, PL 36, 01531 Vantaa
Johannes Lilja
2003/7/24? - 2004/2/10
Satakunnan vankila, Koylion osasto, PL 42, 32701 Huittinen
Vaino Jarvela
2003/7/14 - 2004/1/29
Ylitornion avovankilaosasto, Rajantie 2, 95600 Ylitornio

독일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라인-메인 공군기지에 체포되었으나 많은 이들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일부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벌금형에 처해질 것 같다.

Jannes von Bestenbostel
Trukft Roland-Kaserne 313, Fohrder Landstrasse 33, 14772 Brandenburg
Simon Alexander Lieberg
Fallschirmjagerbatallion, Frieslandkaserne, 26316 Varel

이 두 명 모두 전면적 병역거부자들로서 2003년 10월 1일 입대영장이 나왔다. 이들은 군교도소에 63일 또는 84일 동안 수감된 뒤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아일랜드

2003년 2월 섀논 공항에서 진행되는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핏스톱 플라우쉐어 회원들이 미국의 전투기를 무장해제시켰다. 이들은 현재 보석으로 출소되었다. 이들의 재판지는 더블린으로 옮겨졌으며 아마 2004년 초반에 재판이 재개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ploughsharesireland.org

이스라엘

Mordechai Vanunu
1986/9/30 – 2004/9/29
Ashkelon Prison, Ashkelon, Israel

핵무기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 간첩활동과 반역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1986년 9월 30일 이탈리아에서 납치되었다.

이스라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정기적으로 수감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 번에 28일 동안 수감되고, 다른 이들은 몇 번씩 연달아 수감되기도 한다. 현재 6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이들은 Haggai Matar, Matan Kaminer, Noam Bahat, Adam Maor, Shimri Tzamaret 그리고 Yonathan Ben-Artzi 이다. WRI 홈페이지 http://wri-irg.org 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푸에르토리코

Jose Velez Acosta
#23883-069
2003/9/5 – ?
Jose Perez Gonzales
#21519-069
2003/9/5 – ?
MDC Guaynabo, PO Box 2147, San Juan, PR 00922-2147

음모와 연방정부재산 파손 혐의로 기소되어 2003년 12월 4일 내려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한국에서는 75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1년 반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근에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명단은 다음의 WRI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ri-irg.org/2003/pfp03-en.html#southkorea.

투르크메니스탄

Nikolai Shelekhov
2002/2/7 – 2004/1/1
Lebap velayat, g. Turkmenabad (Chardhev), Ispravitelnaya trudovaya koloniya, Zaklyuchennomu Shelekhovu Nikolayu, Turkmenistan
Kurban Zakirov
1999/4/23 – 2008/4/22
Akhal velayat, g. Bezmein, Ispravitelnaya trudovaya koloniya, Zaklyuchennomu, Zakirovu Kurbanu, Turkmenistan

이 둘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다. 최근에는 이들 이외에 3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미국 전역에서 7,500명 이상이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많이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다른 이들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수감되기도 하였다. 불행히도 지금 현재 누가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Stephen Funk
6개월 2004/3월 출소
Building 1041, PSC 20140, Camp Lejeune NC 28542

그는 2003년 4월 1일 미 해병대에 자수하고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제대를 신청했다. 9월 6일 6개월 형에 처해졌다.

2002년 11월 포트 베닝에 있는 테러리스트 교육기관 '스쿨 오브 아메리카스'에서 시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나 86명이 체포되었다. 대부분은 현재 출옥하였으나 몇몇은 아직도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2003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실천활동이 벌어질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Jeremiah Matthew John
#91324-020
2004/1/18일 출소
Federal Prison Camp, PO Box 33, Terre Haute, IN 47808
Patrick Lincoln
#91400-020
2003/12/8일 출소
FCI, Cumberland, P.O. Box 1000, Cumberland, Md. 21501-1000

위 두 명은 6개월 형과 벌금 미화 500달러를 선고받음 (최후 진술서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soaw.org/new/article.php?id=598)

Charity Ryerson
#91335-020
6개월 2004/1/18일 출소
Pekin FCI, PO Box 6000, Pekin, IL 61555-6000
Derrlyn Tom
#91362-020
6개월 2003/12/6일 출소
Federal Prison Camp, 5675 8th St. Camp Parks, Dublin, CA 94568
Jackie Hudson
O.P. 08808-039
31개월 2005/7월 출소
FCI Victorville, P.O. Box 5400, Adelanto, CA 92301
Carol Gilbert
O.P. 10856-039
33개월 2005/10월 출소
FPC Alderson, Box A, Alderson, WV 24910
Ardeth Platte
O.P. 10857-039
41개월 2006/6월 출소
FCI Danbury, Route 37, Danbury, CT 06810

위 3명은 콜로라도 주 노스이스턴에 있는 N-8 미사일 발사격납고를 무장해제시켰다고 하여 2003년 6월 25일 형을 선고받음.

한국의 평화단체들

☮ 평화인권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번지 기사연 빌딩 5층
TEL : 02-393-9085
FAX : 02-363-9085
E-mail : peace@jinbo.net
http://peace.jinbo.net

☮ 전쟁없는 세상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상도 4동 242-73 2층
TEL : 02-815-4477
E-mail : admin@withoutwar.org
http://www.withoutwar.org

☮ 국제민주연대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TEL : 02-3675-5808
FAX : 02-3673-5627
E-mail : khis21@empal.com
http://www.khis.or.kr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6-1 대호빌딩 303호
TEL : 016-224-6664
E-mail : snupkin6@hanafos.com
http://pal.or.kr

전쟁을 거부할 권리 평화를 선택할 권리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전쟁세거부(War Tax Resistance)와 평화세(Peace Tax)

1846년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 시민불복종 사상으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쏘로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대고 있는 이상, 국가는 폭력을 저지르고 무고한 시민들을 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 수천 명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잔인한 폭력의 도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전쟁세 거부는 이처럼 매우 간단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전쟁, 군비증강과 같은 국가의 군사 활동에 납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행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전쟁저항자연맹(War Resisters League, WRL)은 전쟁세거부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전쟁세납부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전쟁을 증가시키며, 이는 기아, 빈곤, 억압, 추방, 생태파괴를 불러온다. △군사주의를 강화하며 이에 따라 폭력, 인종 차별, 성차별, 동성애혐오, 증오, 차별, 빈곤이 확산된다. △인간의 자유를 감소시킨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감소시킨다. - 군비지출은 보건의료, 주택, 식량, 고용, 교육, 환경보호 등에 인간의 필요에 들여야 할 우리의 자원 중 많은 부분을 소모시킨다. △국제법을 위반한다. △양심을 침해한다. - 평화와 인권을 바라는 구체적인 인간들의 양심과 신념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전쟁세거부는 단지 '합리적인 납세'를 주장하거나 '납세자의 권리를 찾자'는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군사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자는 반군사주의 운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전쟁세거부가 국방비 납세에 저항하는 운동인 이상, 이 운동은 국방비 납부를 정당화하는 국가(군사)안보론, 군사주의 등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군사주의 확산이 인간의 자유와 사회적 권리의 제약으로 귀결되는 만큼, 이 운동은 전쟁과 군사주의로 인해 파괴되는 인간의 구체적인 권리를 방어하는 운동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전쟁세 거부운동은 종종 평화세 제정운동과 짝을 이루어 진행되곤 한다. 여기에서 평화세란 전쟁세를 거부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다. 전쟁세가 아닌 평화세에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한 평화기금을 설치하고 군비납부를 거부한 만큼의 액수를 이 기금을 통해 적립하여 난민지원, 교육, 주택, 아동권의 보호 등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 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벨기에 등 7개국에서는 오랜 기간의 평화세법안제정운동의 결과로 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도 한다. 결국 전쟁세거부는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택해 사회적 자원을 투자하는 대안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하고, 군대와 군비의 완전한 소멸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실천하는 사회 운동적 성격 또한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행동

- 12월1일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최소 4명 이상의 수감자들에게 카드 씁시다.
- 평화단체, 학교 혹은 여러 자리를 통해 카드 쓰는 시간을 마련합시다.
- 시내 중심에 선전대를 만들거나, 조그만 거리 공연 같은 사람들의 주목과 흥미를 끌수 있는 계획을 준비합시다.

카드와 편지 보내기

- 카드는 항상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합니다.
- 봉투에는 답장 받을 이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 당신의 생활 속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는 등 허물없고 다채롭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감자들에게 당신이 전쟁과 전쟁 준비를 반대하고자 무엇을 했는지 말해 주세요.
- 수감자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당신이 감옥에 수감될 경우 받고 싶을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 당신은 무척 용감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 같이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등의 말로 시작하지 마세요.
- 수감자로부터 답장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 내년에는 당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후원을 하시려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지난 46년간 양심수들의 이름과 사연들을 지속적으로 공표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다음 년도 조사를 위해 '평화수감자'(PFP) 특별 기부를 하 실 수 있습니다.
- 명단에 있는 수감자들이 평화뉴스(Peace News)를 구독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또는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은 수감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손길이 수감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연대를 보여주세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4개 국어로 번역된 평화수감자의 날 캠페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wri-irg.org)

전쟁세거부에 대한 국제적 인권규정

국제사회에서 전쟁세 거부 혹은 '양심에 따라 전쟁세를 거부할 권리(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Taxation)'는 인권항목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규정되는 추세에 있다.

보통 전쟁세거부의 기본 동기는 납세를 통해 전비를 지원하고 그것이 끔직한 폭력과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평화를 바라는 자신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전쟁세거부는 양심에 따른 거부권(Conscientious Objection)을 실현하는 한 형태로서 사고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심에 따른 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더 나아가 유럽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는 보다 분명하게 양심에 따른 거부권의 내용을 병역거부뿐만이 아니라 군비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에까지 확장시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한 바도 있다. 유럽의회의 시민적 자유위원회는 "납세부분에 대해서도 양심에 따른 거부권이 적용"된다는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으며(1993), 세계교회협의회 또한 1990년에 "병역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를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발표한바 있다.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전쟁세를 거부할 권리'를 인권항목의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세거부자와 평화세제정 운동가들의 오랜 노력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0여 개국의 전쟁세거부자들과 평화세제정운동가들은 전쟁세거부권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대략 80년대부터 국제적인 연대운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1994년에는 Conscience and Peace Tax International이라는 국제조직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Conscience and Peace Tax International의 창립총회 선언문인 혼다리비아 선언은 전쟁세거부운동의 문제의식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군비지출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right of non cooperation with military expenditure)"를 부제로 달고 있는 이 선언문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누구도 심오한 양심에 따른 신념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간을 살상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군사적 수단이 국제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병역복무· 납세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군사 활동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인류와 각국정부들에게 군비지출에 대한 양심에 따른 거부를 존중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든 군사지출과 군사 활동을 철폐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구미의 경험과 논쟁

전쟁세거부 운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유례를 가지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와 2세기경 이집트에서도 전쟁세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집단적인 납세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2세기

나동혁

(27세, 서울)



해방 이후, 50년간 한국에서는 약 1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었는데 이들은 99% 이상 여호와의 증인이다. 20세기가 되어서야 군사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 속에서 사상적, 정치적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났다. 9.11 테러 이후 한국 사회에도 본격화된 반전평화 행동이 이들의 신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의 하나로 비여호와의 증인으로는 4번째 병역거부자다.
나는 대학에 들어와 꼬뮨주의자들과 교류하며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의 경험은 국가권력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심어주었다. 반면, 우리 안에 내면화된 군사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편이었는데 이는 집단주의적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운동의 강한 영향 때문이다. 앞서 병역을 거부한 3명의 비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과 접촉과 공동행동은 내 생각을 크게 변화시켰다. 반전평화 운동의 경험과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거쳐 병역거부에 이르게 되었다. 평화로운 수단으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평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쟁시스템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 작년 9월 12월 병역을 거부한 결과,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와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다. 재판이 다시 시작될지 몰라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다. 현재 학업을 마치기 위해 대학에 다니면서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평화 행동에 함께하고 있다.

병역거부 수감자 지원에 동참합시다!

병역거부 속보(co-alerts)

아직도 많은 나라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핀란드, 아르메니아 그리고 그밖에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정부나 권력 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대체복무마저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혹은 국가나 여타의 권력기구의 억압에 직면하여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 속보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서 병역거부자의 수감사실이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메일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으로서 이들을 위한 지지와 항의를 결집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 속보는 이메일로 받아 보거나 (메일링리스트 가입신청 http://wri-irg.org/mailman/listinfo) 또는 인터넷(http://wri-irg.org/cgi/news.cgi)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서는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들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d London N1 9DX Britain
tel : +44-20-7278 4040
fax : +44-20-7278 0444
emai :l concodoc@wri-irg.org
http://wri-irg.org/cgi/news.cgi

12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 등지에서 전쟁세 거부자가 있었다는 기록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구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세거부운동의 직접적인 뿌리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이며, 이를 계기로 전쟁세거부운동이 집단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참고자료의 한계 상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벌어진 전쟁세거부운동을 중심으로 이 운동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다.

미국에서는 존 바즈라는 여성이 그녀의 수입세 중 60%를 베트남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쟁세 납부를 거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세거부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존 바즈를 포함해 1965년에 일군의 평화주의자들은 "No Tax for War in Vietnam Committee"라는 단체를 조직해 전쟁세 거부를 집단적으로 조직하였으며, 이 운동의 결과 1967년까지 약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쟁세 납세거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0년대 반전운동의 성장과 함께 전쟁세거부운동도 발전하여, 수백 명에 이르던 전쟁세거부자들이 수만 명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전쟁세거부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1966년경에는 전화세 중 10%의 납세를 거부하자는 운동이 칼 마이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전쟁저항자연맹은 이 운동을 60년대 말까지 꾸준히 진행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켄 크누드손은 전쟁세거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W-4 resistance를 제안하였으며, 이 아이디어에 바탕 한 운동 또한 종교단체, 평화주의자들, 전쟁거부자연맹 등 여러 조직들에 의해 60년대 말까지 진행되기도 하였다. W-4 resistance는 원천징수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 구직 시 적어내는 W-4 form에 원천징수 '면제'를 선언하거나,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등 필요조건을 W-4 form에 써내는 운동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납세기피혐의로 관련자를 고소하였고, 6명가량이 수감되기도 하였다.

1970년에 이르자 미국의 전쟁세 거부자들은 대략 2만 명가량에 육박하게 되며, 전화세거부자들 또한 수십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많은 전쟁세거부운동 그룹들이 지방 곳곳에서 펼친 '민중생활기금'운동이다. 당시 전쟁세거부자들은 납세를 거부한 만큼의 돈을 '민중생활기금'으로 적립하여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고 한다. 72년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평화세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하였으며, 현재에까지 평화세 제정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평화세 법안은 양심에 따라 전쟁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납세를 거부한 만큼의 액수를 평화기금으로 조성해 평화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요컨대, 전쟁세거부 운동은 반전운동의 굴곡과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민중의 일상과 전쟁, 폭력, 군비증강 따위의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일상적이며 대중적인 반전운동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전쟁세거부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러 논쟁들의 의미와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다. 전쟁세거부를 납세의무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입장과 양심의 실현 혹은 저항권의 발휘로서 납세거부를 정당화하는 입장의 충돌, 안보의 집단성 혹은 국가(군사)안보를 강조하는 입장과 안보의 개인성, 인간안보를 강조하는 입장의 충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전쟁세거부를 바라보는 입장과 적극적인 불복종 직접행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보는 입장의 대립 등… 요컨대, 이와 같은 사회적 논쟁을 통해 인권담론의 시야와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권리

진지한 마음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은 게으른 꿈과 싸우거나 단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에 저항하는 일상적인 실천은 여전한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라크라는 해외의 전장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문제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세 거부운동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당한 이라크 점령에 협조하는 국가에 항의하고, 전쟁이 아닐 평화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은은하지만 끈질긴 평화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김창식

김창식 (50세, 충북 음성군)



1970년 군사정권에 의해 고등학교에서 군사훈련 수업이 시작되자 당시 장호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김창식은 군사훈련 수업을 거부하였다. 학교 측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감안하여 즉시 퇴학시키는 대신 교련 수업을 '참관'토록 하였다. '참관'의 내용은 운동장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이었다. 갖가지 압력으로 인해 당시 17세였던 김창식은 결국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자퇴를 하였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던 김창식은 1974년 입영 영장을 받고 병역을 거부하여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만기 출소하던 날 교도소 밖에 대기하고 있던 병무청의 검은 지프차에 태워져 육군 제37사단 신병훈련소로 끌려갔다. 어떠한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 병역 거부 입장을 밝힌 후 대전 3관구 헌병대에서 90일 동안 구속 수감된 그는 매우 가혹한 학대를 경험해야 하였다. 90일 내내 엎드려뻗치기, 원산폭격과 같은 기합이 계속되었고, 헌병 곤봉으로 손바닥, 가슴, 발바닥을 각각 50대씩 총 150대를 맞은 날도 있었다. 맞은 직후에는 발바닥이 너무 부어올라 지급받은 군화가 발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헌병대의 한 중사로부터는 4시간을 연달아 맞은 적도 있었다.

이렇게 90일을 보낸 후 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재판 때까지의 미결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켜 주지 않아 헌병대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간은 그냥 허공으로 날린 채, 육군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빨간 벽돌 위에서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를 한 채 얻어맞다 보면 주먹의 피부가 모두 벗겨져 피가 흐르기 일쑤였다. 총 개머리판으로 엉덩이를 맞다가 개머리판이 부러지기도 했다. 그러면 헌병은 오히려 화를 내며 10대씩 더 때리곤 하였다. 당시 육군 교도소의 경례 구호는 '때려잡자 김일성(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호를 거절한 것은 이런 뭇매의 또 다른 사유였다.

결국 김창식은 병역법 위반으로 8개월, 군형법 위반으로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실제로는 불법 구금된 기간을 합쳐 4년이 넘게 복역하였다. 이렇게 하여 김창식은 70년대 중반 군사적 분위기를 강조하던 당시 국가 제도와 그 분위기에 휩쓸린 군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은 수많은 병역거부자 중 하나가 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있어서 법적 변화

최정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2년 1월 말,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는 위헌재청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또 노무현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후보자 시절 대체복무 등의 법률개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다. 국회에서도 2001년 초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체복무제도 입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된 이후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적 상황은 입법, 행정, 사법계를 통틀어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개정은 답보상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맘대로 해왔던 것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본격화된 지금은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다. 형량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데 지금까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형(최고형의 형량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왔다. 94년 이후에는 줄곧 3년)을 선고하던 것에서 현재는 1년 6개월 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는 법정 최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현행 병역법에서는 실형 1년 6개월 미만을 선고받았을 경우는 재징집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올 7월 중순부터 병역거부자들에게 교정시설에서의 종교예배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대다수가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해왔는데 정부는 병역거부라는 범법의 이유가 종교에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에게 교정시설 내에서의 종교예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군제대 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군 병역거부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한 편이다. 군제대 후 예비군에 배속된 상태에서 소집훈련에 불응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4항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투옥형 처벌을 받고 있는데 특히 처벌 후에도 예비군 배속 기간 동안 반복해서 훈련 소집을 요구받고 있어 법리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 처벌되는 문제가 심각하며, 벌금형의 누적수준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액수이다. 최근엔 한 예비군 병역거부자가 각각 10개월과 8개월에 걸쳐 2번의 형을 살았지만 2번에 걸쳐 받은 형량이라는 이유로 재차 훈련소집이 부과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평화수감자들을 지원해 주세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후원 안내



평화수감자들은 우리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평화수감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CO-alert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주소: ....
■ 수감자에게 평화뉴스(Peace News) 1년치 정기구독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수감자 이름: ....
■ 후원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 (미국 달러)
■ WRI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여 WRI 활동 소식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 평화뉴스 견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위 양식에 기입을 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oad
London N1 9DX Britain

내 이름과 주소:

name(이름)
....

address(주소)
....
....

카드 결재 시

아래 금액을 내 신용카드에서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US$(미국 달러) ....
카드 종류
(Visa/Access/Master card/American Express)
카드번호 ....
유효기간 ....
소지자 성명 ....
우편물 받을 주소(위 주소와 다르면 적어주세요)
....
....

당신의 연대에 감사드립니다.